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 변동에 관한 연구

- △ 발 표: 이상학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 △ 토 론: 한석호 (민주노총 사무부총장)
진숙경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 △ 사 회: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일 시 : 2014년 5월 22일(목) 오후 4시
- 장 소 : 국민서관빌딩 1층(공덕역 2번 출구)
- 주 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 후 원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발표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 변동에 관한 연구
-저항 정체성을 중심으로

이상학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PPT 파일로 대체

토론 1 :

한석호 민주노총 사무부총장

MEMO

토론 2 :

진숙경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 변동에 관한 연구: 저항 정체성을 중심으로" 토론문

진숙경

민주노조운동의 주요한 연구주제라 할 수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내용, 변동에 주목하여 사회학적 분석틀로서 세밀한 분석을 이루고 있어, 현재의 정파 구도 등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됨.

향후 논문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몇 가지 문제제기에 주목하여 토론문을 작성함.

○ 왜 정체성인가?: 이론틀, 시기 구분 등의 선행적인 접근의 문제

- 논문은 구조적 접근 보다는 행위자 접근을, 나아가 행위자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며, 특히 저항 정체성을 분석의 틀로 삼고 있음. 저항 정체성의 중심적인 관심 대상은 “정체성 변동”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분석틀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선행적 주장으로 출발한 아쉬움이 남음.
- 저자는 정체성의 개념 설명으로부터 정체성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현실을 설명하는데, 기존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왜 정체성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임.
- 한편, 정체성 변동 연구를 위해 1987년과 2004~2005년 두 시기를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동운동의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국 사회의 큰 변화를 구분하는 시기는 87년과 98년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상식적인 구분을 벗어난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함. 그런데 이 또한 선행적으로 제기되어 있어 좀 더 근거 있는 제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04~2005년 사회적 합의기구(노사정위) 복귀를 둘러싼 논쟁에서 노조 운동 입장, 세력, 집단 간의 격렬한 다툼이 존재하였음. 그런데 이는 기존 정체성의 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이후 정체성의 변동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움.
- 98년 이후 현실의 변화가 있었으나, 노조운동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옛 모습을 유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04년을 넘어서며 변화한 것, 즉 상황의 변화가 시차를 가지고 정체성 변화로 나타난 것(Burke et al, 2009)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에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임.
- 현실의 상황과 맥락은 노조운동의 정체성 변동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운동세력들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잘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지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것.

○ 정체성 개념의 난해함.

- 현실을 기존 개념들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경우, 어렵고 힘들더라도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 그런데 논문에서 제기되는 정체성은 상당히 난해함. 87년 노동운동 시기 전체의 특징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특정 입장을 가지고 있는 “~주의(~ism)”로 사용되기도 하며, 주체와 동일시되어 사용될 때도 있고, 주체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으로 서술되기도 하고 있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함. 이렇게 어렵고 낯선 개념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 87년 이후 노동운동의 전개 과정을 저항 정체성 형성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도나 실리 정체성은 언제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87년 노동운동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저항, 제도, 실리라는 3가지 정체성의 내용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실체로서 3가지 정체성의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그런 의미에서 87년의 노동운동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있어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87년 어용노조에 저항한 민주노조 운동의 핵심적인 이슈는 “민주노조 건설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과 나아가 노동해방”으로 집약해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보이며, 이는 ‘저항’과 ‘제도화’, ‘실리’ 정체성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분석할 수도 있음.
- 실리주의는 기업 단위 노조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업 단위만 뛰어 넘으며 실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분석이야말로 구조적 접근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 정파와 정체성의 연관성

- 저자는 노동운동 내 정파와 정체성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해석으로 보임.
- “노조운동 내부의 정체성에 편승하고 있는 정파, 정파가 정체성을 이끌어가는 점보다 형성된 정체성을 정치적으로 활용”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기 집단 정체성 인식하에 모인 것이 정파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체성과 정파를 구분지어 생각하기는 쉽지 않음. 이를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면 그 실천적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인간관계로 확장되는 경계”라며 정파가 다르면 식사조차 하지 않는 비인간적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 인간관계, 즉 인간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집단 정체성 형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어, 이런 표현은 부적절해 보임. 오히려 집단이 소수화되면서 집단 내부 응집성이 더 높아지고 기존의 전형화된 집단 정체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집단간 의사소통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임.

- “정파들이 정체성 경쟁을 하지 않고 내부정치 목적으로 타자와의 차별화와 대립의 길”을 걷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는데, 정체성 경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불분명해 보임. 정파간의 상생적 정치의 실종은 정체성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원인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기존의 전형적인 집단 정체성에 얽매어 있음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됨.

○ 저항 정체성에 대한 과도하면서 한편으로 협소한 해석

- 저항 정체성은 저항적 투쟁과 동일시하고, 제도, 실리 정체성은 대화와 타협 등으로 도식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됨.
- 저항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파’ 일부 세력이 특정 시기에 보여준 태도로서 이들의 행동을 저항 정체성 전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됨. 또 이들의 2005년 대의원대회 무산 시위와 관련해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감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과반수 절차’에 대한 거부감이라 할 수 있음. ‘승자독식’의 소수를 배려하지 않는 조직문화와 제도 하에서 소수자의 저항이지 이를 “절차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확대해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주장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다른 풍부한 사례가 제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의식과 실천 사이의 괴리로 인한 ‘복수 정체성’의 등장과 이를 해소하지 못함에 따른 정체성 실종이 현재 정파 조직의 핵심 문제로 보임.

- 현장파, 국민파, 중앙파의 전형적 사례와 일탈적 사례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한 일탈적 사례가 나오게 되는 원인에 집중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국 노동운동의 전체적인 흐름은 저자가 구분한 저항 정체성에서 제도, 실리 정체성으로의 이전이나 후자 세력의 확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이는 현장파의 현장 내 변화 등을 되돌이켜 보면 더 명확해 짐.

○ 각 이론들을 별개로 적용하여 각 장과 이슈별로 별개로 정리되어 있음으로 인해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중복되는 내용도 없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 주체들이 보이는 정체성의 내용과 변동, 혼란의 양상을 잘 설명하기 위해 이론적 개념과 내용을 활용하는 방안이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전체 차원의 그림을 그려주는 방식의 논의 전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주목하여 실천적 함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임.